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anjin Heavy back in business as MPC Capital mulls \$390m deal

한진중공업이 독일 MPC Capital등과 2014년 이후 첫 수주를 논의 중으로 보도됨. MPC Capital은 5,3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이상을 발주할 것으로 밝혀짐. 옵션분 2척을 포함한 계약금액은 최소 3.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파워트레인 기업 AVL과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대중공업이 오스트리아 파워트레인 기업 AVL과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 2025년까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할 것으로 보도됨. (서울경제)

탱커 발주 잠시 휴식

2016년 이후 처음으로 8월 한달 간 단 한 척의 탱커도 발주되지 않음. 2021년 누계로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임. 선형별로는 MR탱커가 가장 많이 발주됨. 현재 글로벌 탱커 수주잔고는 410척, 5,300만DWT로 운항 선대의 약 8.6% 수준임. (선박뉴스)

ABB brings out its battery in a box system for ships

화요일(7일) Wartsila의 배터리 컨테이너 시스템에 이어 8일 ABB가 선박용 20피트 박스형 배터리를 공개함. 특히 전력실 공간이 제한적인 offshore support 선박의 경우 self-contained 시스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내년 변압기 반덤핑 관세 하향 기대

미국 상무부는 8차 국산 변압기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일진에 8.85% 관세율을 부과함. 지난 6월 7차 연례재심에서 확정된 52.47%에 비해 낮은 수준임. 최종판결은 2022년임. (전기신문)

대한전선, 420억원 규모 美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대한전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부터 420억원 규모 전력 인프라프로젝트 수주함. 오는 2028년 LA올림픽 등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LA지역에 275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조선Biz)